

창업 및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

글 / 구성 : 김영환 (younghwankim@stepi.re.kr)
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부연구위원

I.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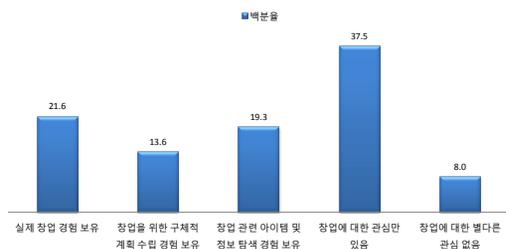
- 조사 일시: 2015 STEPI 국제심포지엄
(2015년 5월 28일)
- 응답자 수: 88명
- 응답자 성별: 남성(86.4%), 여성(13.6%)
- 응답자 연령: 20대(11.4%), 30대(13.6%), 40대(20.5%), 50대(31.8%), 60대 이상(22.7%)

II. 창업에 대한 대중 인식

1. 과거 창업 경험

-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21.6%, 관심만 있는 사람은 37.5%
-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54.5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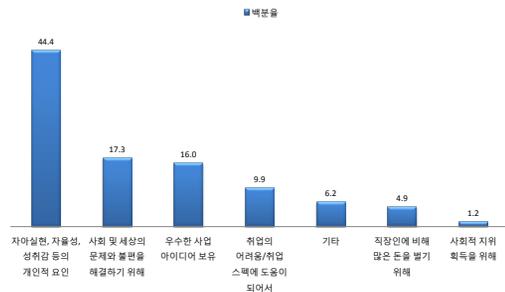
그림 1: 과거 창업 경험



2. 창업 실행(또는 계획)의 동기

- 자아실현 등 개인적 요인이 44.4%를 차지, 사회 문제 해결(17.3%)과 우수한 사업아이디어 보유(16.0%)가 창업 동기가 되었다는 대답이 뒤를 이음
- 개인의 부 축적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의 목적은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남(각각 4.9%, 1.2%)

그림 2: 창업 실행(또는 계획)의 동기



3. 향후 3년 이내 창업에 대한 의향

- 다소 있거나 매우 있다는 응답이 각각 34.1%, 18.2%로 절반 이상이 창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매우 있다는 적극적 창업 의향보다는 다소 있거나 보통인 소극적 창업 의향이 높음

그림 3: 향후 3년 이내 창업에 대한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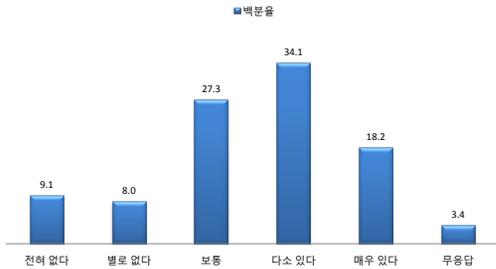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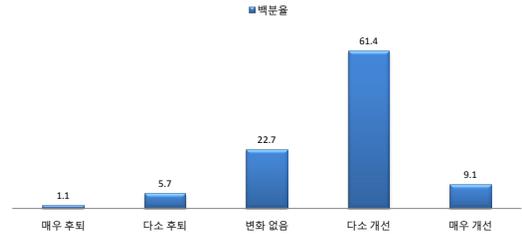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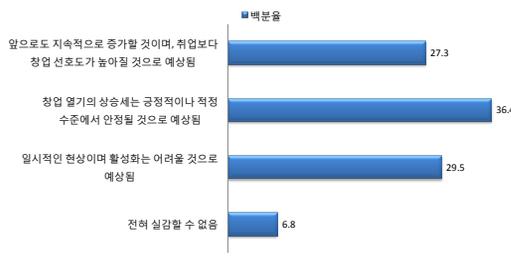
그림 5: 최근(3년 이내)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



4. 최근 창업 열기에 대한 인식

- 창업 열기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음(36.4%)
- 창업 선호도가 취업 선호도를 능가할 것으로 보는 비중도 27.3%에 달하나,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비중도 29.5%를 기록

그림 4: 최근 창업 열기에 대한 인식



5. 최근(3년 이내)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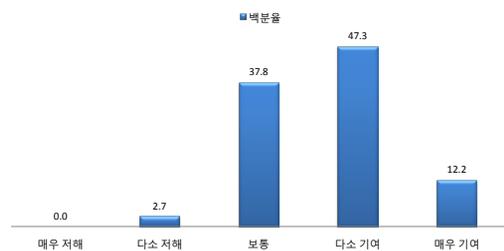
- 다소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전체의 61.4%를 차지
- 후퇴했다는 인식은 전체의 6.8% 수준으로 대다수가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
III.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

1.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여에 대한 인식

-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의 59.5%
-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그림 6: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여에 대한 인식



2.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

- 창업생태계의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자금 지원(18.6%), 창업 공간 등 인프라 구축(15.2%),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교육(14.1%) 순으로 나타남
- 법제화/규제개선,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

성 등의 정부의 사업 환경 조성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(각각 10.3%, 9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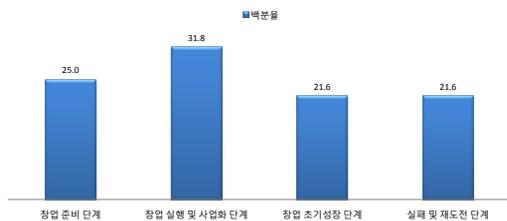
그림 7: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(1, 2, 3순위 합산)



3.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창업 단계

- 창업 단계 중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창업 실행 및 사업화 단계임
- 비교적 창업의 4단계의 응답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 정부의 창업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그림 8: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창업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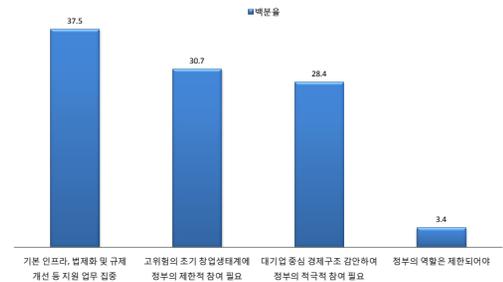


4. 정부의 창업생태계 참여 확대에 대한 의견

- 정부의 창업생태계 참여에 대해 기본 인프라 및 법제화/규제 개선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(37.5%)

- 고위험 특성을 가진 초기 창업생태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(30.7%)과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한 정부 참여의 필요성(28.4%)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민간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매우 낮음(3.4%)

그림 9: 정부의 창업생태계 참여 확대에 대한 의견



IV. 종합평가 및 시사점

1. 창업에 대한 대중 인식

- 창업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21.6%이고,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32.9%에 달하나 상당수(37.5%)가 창업에 대한 구체적 실천 없이 관심만 가지고 있음
- 창업 실행(또는 계획)에 대한 동기는 자아실현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, 사회 문제 해결이나 우수 사업아이디어 보유의 동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향후 3년 이내에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

- 창업 열기의 지속적인 증가나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원이 60% 이상
- 최근 3년 이내 창업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전체의 61.4%를 기록

2.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

-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의 60%에 가까움
- 정부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자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
- 창업의 '준비-실행 및 사업화-성장-실패 및 재도전'의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
- 민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생태계 참여의 제한적 참여보다는 적극적 참여를 바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및 창업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실효성 및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
-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, 법제화 및 규제 개선 등 기본 지원 업무를 기반으로 고위험의 초기 창업생태계 및 대기업의 영향력에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

3. 시사점

-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에 따른 창업의 대중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
- 최근의 창업 대중화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창업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업을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
- 수입의 증대나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등 창업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